

통일대비 북한지역 적합 누에품종 개량 및 사육기술 개발

이상욱, 강필돈, 손봉희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통일대비 예상되는 북한지역의 저온현상에 특히 강건하면서 견사량은 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누에계통 육성 및 불량환경하에서의 누에사육 기술개선에 관하여 시험한 결과 '96년도에 선발된 일·중국종계 각각 3계통을 '97년도에 공시하여 시험한 결과, 특히, 일본종계 9179는 전견중이 1.80g 수준으로 대조 1.8g보다 가벼운 편이었으나, 강건도가 상당수준을 보이고 있어 유망시 되었으며, 중국종계 M9360은 대조와 같은 수준의 강건도와 수량성이 대조보다 높은 견질을 보였고, '98년 백옥잠을 대조로 하여 9개 교배조합(일본종계3, 중국종계3)능력 검정결과 9179×M9360교배조가 화용비율이 대조대비 3%, 수견량이 9% 높고, 견질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98선발 우량교배조합 9179×M9360을 각 처리 잠실에서 금옥잠과 '99년 현지(철원)실증 비교 시험한 결과 총·견질에서 춘,추잠기 모두 낮았다.

따라서 선발된 누에계통 9179×M9360은 육성 선발 기간이 짧아 경상과제로 실용형질 향상을 위한 계대 선발이 계속 요망된다.

불량환경에서의 누에사육 기술 개선에서는 구조와 형태가 다른 2개동의 간이잠실을 축조하였는데, 비닐차광 간이잠실의 자재대는 상자당 352,360원이었고, 보온덮개 간이잠실의 자재대는 399,160원이었으며, 처리잠실별 누에사육 시험결과 보온덮개 보온간이잠실이 총·견질면에서 모든 처리 간이잠실보다 성적이 가장 높았다.

부분시산법에 의한 경제성분석 결과 대조인 비닐차광 무보온 간이잠실에 비해 보온덮개 보온 간이잠실은 10a당 99,287원의 소득 향상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선발된 교배조 9179×M9360은 육성선발 기간이 짧아 경상과제로 실용형질 향상을 위한 계대선발이 계속 요망되며 대북기술 지원을 위한 누에품종은 대조품종의 사육결과로 미루어 현 보유장려품종도 문제점이 없고, 누에사육 잠실은 보온덮개 피복보온 간이잠실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